

유틸리티

Sector Issue Brief

2026. 9. 15

Check Point

- 업체별 환율영향 헷지 여부/디테일 상이
- 전체적으로 환율변동 관련 OP 영향 제한적

전력기기주 환율변동 영향 진단

| Analyst 성종화 | jhsung@ls-sec.co.kr

전력기기주 커버리지 4사 환율변동 영향 진단: 업체별 환율영향 헷지 여부, 디테일 상이

● 효성중공업

■ 영업실적 환율변동 영향

- ▶ 매출, 원가(원자재) 모두 100% 헷지로 환율변동 영향 중립(매출, 원가 모두 수주시점의 환율로 원화금액 고정)

■ USD 기준 보유 현금 환율변동 영향

- ▶ 헷지 안함. 환율변동에 따른 Book 평가액 영향 있음. 분기 결산시기별 환율변동 관련 외화환산손익 발생

● LS ELECTRIC

■ 영업실적 환율변동 영향

- ▶ 본사(전력기기, 전력인프라, 자동차, 신재생)

- ▷ 1H26 연결영업이익 중 본사 영업이익 비중 96%, 본사 매출 중 해외매출 비중 49.3%

- 수주 기반 제품: 매출, 원가(원자재) 모두 100% 헷지로 환율변동 영향 중립
- 양산형 제품: 헷지 안함. 원가(원자재)는 구매시점 환율로 반영, 매출은 판매시점 환율로 반영되며 영업이익 영향 있음
- 본사 영업이익 중 양산형 제품 비중 30% 내외, 양산형 제품의 해외매출 비중 50% 내외
- 따라서 환율변동이 몇백원 규모의 급격한 변동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영향은 미미

- ▶ 자회사(국내: LS메탈, LS이모빌리티솔루션, 기타. 해외: 중국법인, 베트남법인, 기타)

- ▷ 26E 기준 자회사는 매출 비중은 45%이나 영업이익 비중은 4%에 불과하여 그 중 해외매출 부분에 대한 환율영향은 미미

■ USD 기준 보유 현금 환율변동 영향

- ▶ 헷지 안함. 환율변동에 따른 Book 평가액 영향 있음. 분기 결산시기별 환율변동 관련 외화환산손익 발생

● HD현대일렉트릭

■ 영업실적 환율변동 영향

- ▶ 매출, 원가(원자재) 모두 헷지 안함. 환율변동에 따른 영업실적 영향 있음

- ▷ 1H26 연결매출 중 수출매출 비중 78.3%

- 원자재 구매/투입 시점, 제품 생산 후 판매시점 시차에 따른 환율적용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환율변동 관련 매출 영향과 원가(원자재 구입비용) 영향이 상호 상쇄관계라 환율변동 관련 영업이익 영향은 매출 영향보다는 훨씬 제한적
- 수출매출 비중 80% 육박하는 상황에서 환율변동 헷지를 안하고 있어 환율변동에 따른 영업이익 영향 자체는 전력기기 Big 3 중 가장 큼. 다만, 2026년 매출 가이드언스(4.35조원, yoy +6.6%)는 올해 연평균 환율 1,350원 기준이라 8월 이후의 원화강세를 감안하더라도 가이드언스에 적용된 올해 연평균 환율 가이드라인 자체가 매우 보수적인 수준

■ USD 기준 보유 현금 환율변동 영향

- ▶ 50% 헷지. 50%에 대해선 환율변동에 따른 Book 평가액 영향 있음. 분기 결산시기별 환율변동 관련 외화환산손익 발생

● 산일전기

■ 영업실적 환율변동 영향

- ▶ 헷지 안함. 환율변동에 따른 매출, 영업이익 영향 있음(원자재는 3-4개월 안전재고 보유로 원화약세 시엔 방어 역할)

- ▷ 26E 기준 수출비중 97%로서 환율변동 영향 민감도 큼. 다만, 환율변동 관련 영업이익 영향은 매출 영향의 절반 정도

■ USD 기준 보유 현금 환율변동 영향

- ▶ 100% 헷지. 환율변동에 따른 Book 평가액 영향 중립. 분기 결산시기별 환율변동 관련 외화환산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상쇄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성종화).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 중 LS ELECTRIC은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고, 나머지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합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90.3% 9.7%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15%로 변경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07. 01 ~ 2026. 0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